

7/18/21

설교 제목: 온 천하에 당신 이름을 전파하기 원하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9 장 1-35 절

(출 9: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9:2)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출 9:3)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출 9: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 9: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출 9: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 9:7)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출 9: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출 9: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출 9:10)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출 9:11)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 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출 9: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 9: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9: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출 9: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출 9: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 9: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출 9:18)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출 9:19)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 9: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출 9:21)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 9: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출 9: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출 9: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출 9: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출 9: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 9: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출 9: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출 9: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출 9: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출 9:31)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출 9:32) 그러나 밀과 나뭇은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출 9:33)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출 9:34)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출 9:35)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본문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다섯 번째 생축을 악질로 치는 재앙, 여섯 번째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게 하는 재앙, 일곱 번째 우박과 불이 내리는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축을 악질로 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일관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5:1, 7:16, 8:1, 8:20) 선포입니다.

(출 9: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령을 거스리는 바로에게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고 하시며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출 9:2)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출 9:3) 여호와와 그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출 9: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 9: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생축은 고대인들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생축이 악질으로 인해 죽는다면 애굽인들은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단순히 사람이나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심화되어 재앙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축에게 악질을 내리는 이 재앙은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과 더불어 애굽의 각종 우상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생축들은 각종 형태로 형상화되어 애굽인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우상 종교의 희생 제물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악질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당신이 모든 피조물의 생사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보여 줍니다.

(출 9: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 9:7)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여섯 번째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령을 듣지 아니하는 바로 앞에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 9: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출 9: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출 9:10)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출 9:11)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 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출 9: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 백성을 보내 그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라고 종용하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셨을까요?

10 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출 1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출 10:2)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첫째로는 당신의 표징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표징을 보여 대대로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과 불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선포입니다.

(출 9: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9: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출 9: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출 9: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세 뿐만 아니라 바로도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당신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열 번의 재앙이 다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역으로 바로를 단숨에 죽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당신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곱 번째 재앙을 예고 하십니다.

(출 9: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출 9:18)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출 9:19)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출 9: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출 9:21)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 9: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출 9: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출 9: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출 9: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찢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출 9: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인 자들은 재앙을 면하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렇지라도 바로는 하나님의 령을 듣지 않습니다.

(출 9:35) 바로의 마음이 강퍽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계속해서 당신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내리신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 어떤 표징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길 원하신 것일까요?

열 가지 재앙 모두??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전파하기를 원하신 표징 그것은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받지 못한 바로 축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고 어린 양의 피로 구별받은 이스라엘 축의 모든 이가 구원을 얻게 되는 표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기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를 계획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며 우리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해 줄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토록 하기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 귀한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